

아키히토 일본 천황 내외 주최 만찬답사

천황폐하 내외분과 황실 일가 여러분,

그리고 총리대신 각하를 비롯한 귀빈 여러분,

먼저 성대한 만찬과 환영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반가운 이웃의 정을 느낍니다. 예로부터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1,500여년에 이르는 우리 조상들의 교류와 친선의 역사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전후세대'의 첫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깊고 오랜 양국의 우호 친선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 충분한 가능성은 지난해에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2002년은 한·일 관계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해였습니다.

월드컵 대회의 공동개최는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아서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월드컵을 훌륭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전 세계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울과 도쿄의 거리에서는 양국의 젊은이들, '붉은 악마'와 '울트라 닛폰'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를 응원하는 초유의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양국의 방방곡곡에서는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10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젊은 세대가 앞장섰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이해와 우정을 키웠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한·일 양국의 미래에 대해서 커다란 희망을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간의 교류와 교감은 우리 두 나라가 만들어 갈 내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양국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지난해에 용솨음쳤던 뜨거운 열기가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그 열정, 그 감동을 한·일 공동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명실상부한 한·일 동반자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양국 지도자들이 마땅히 감당해 나가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의 전통과 시장경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러한 한·일 양국에게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가 그야말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서로가 존경하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지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천황폐하 내외분의 건안과 한·일 우호협력의 영원한 발전, 그리고 우리 양국

이 함께 만들어 나갈 동북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축배를 들어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